

KOREA

우리 국토의 모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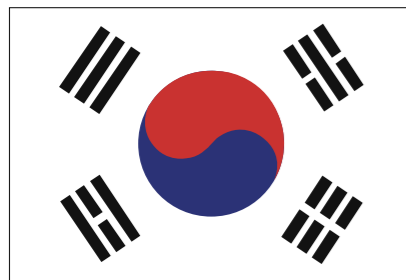
# 대한민국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동아시아의 동안에 자리한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 영토는 남북 길이 약 1,100km에 달하는 육지부와 약 4,000여 개에 달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약 22만 3천 km<sup>2</sup>이다. 북쪽으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영해는 해안 및 최외측 섬을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12해리 선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대한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는 고대 이래로 한민족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한민족이 세운 많은 나라가 굳게 지켜온 활동 무대가 되어 왔다. 대륙과 해양으로 열려 있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융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민족적 고난을 겪기도 했고, 동족 상잔과 분단이라는 아픔을 견뎌 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후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로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명목 GDP, 2017, IMF), 무역 규모 세계 7위(세계무역통계, 2016,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법치 제도, 민주적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를 정착시켰으며, 지방 자치 제도의 실시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눈부시다.



태극기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상징하며,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뜻한다.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뜻한다.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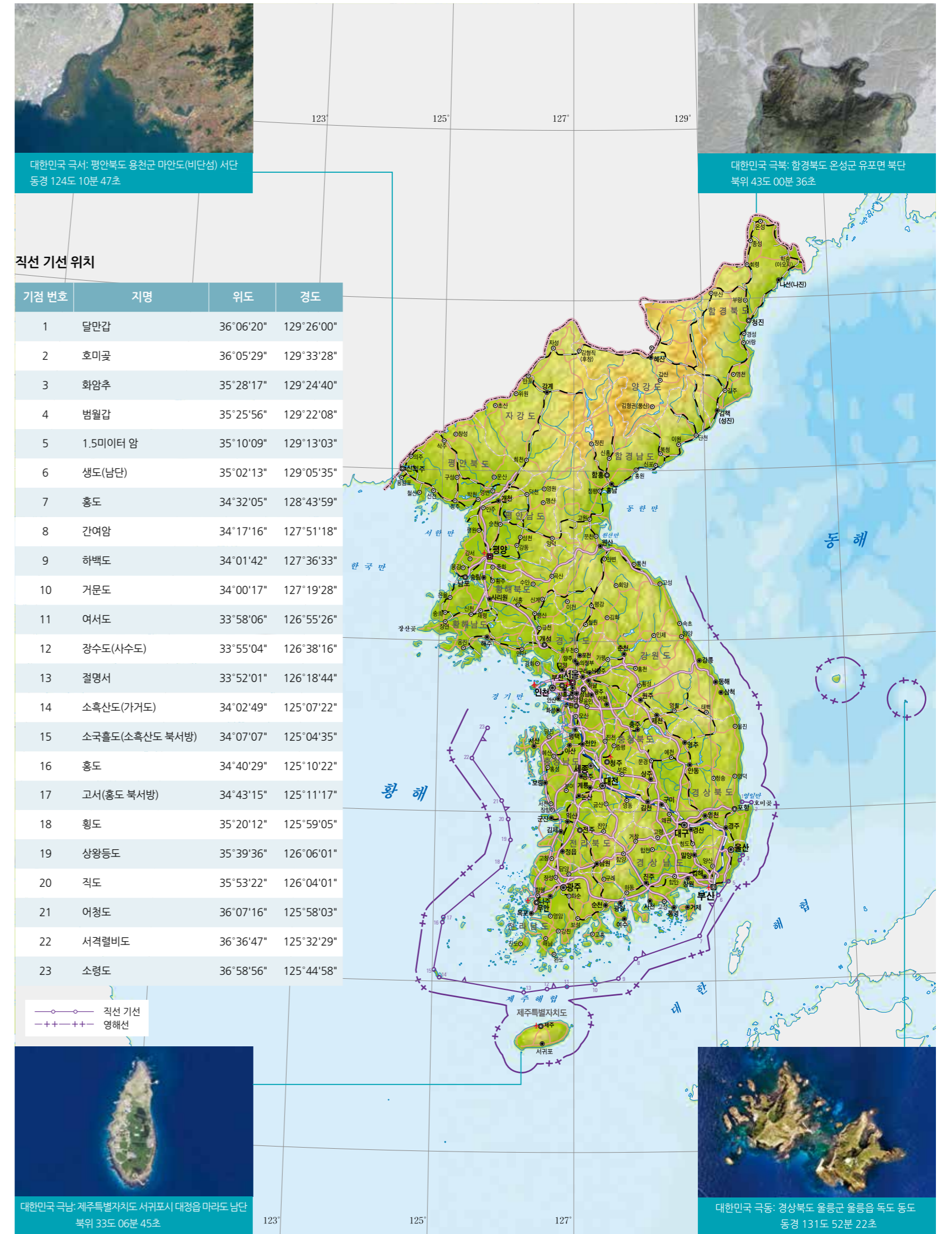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 나라(근화향 權花鄉)'라고 부르기도 했다.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피고,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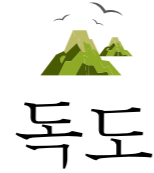
나라 문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크로,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표시이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외국 기관에 발송되는 중요 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 공관의 건물 등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극단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 동해의 중심에 있다. 독도는 동해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대형 화산(독도해산)의 일부로, 그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약 25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보다 앞선 것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가 교차한다. 따라서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영

향을 많이 받지 않아 청정 수역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어류·해조류·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어업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부에서는 이곳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이자 울릉도민의 생활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문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후에 진행된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고, 우리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며,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의 주민 숙소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경비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이다.



독도 라이브영상(KBS)  
(http://office.kbs.co.kr/dokdo)



독도의 지리적 개요

항목	내용	비고	
거리	독도와 울릉도	87.4km(47.2해리)	해안선 기준 최단 거리
	독도와 경북 울진 죽변	216.8km(117.1해리)	해안선 기준 최단 거리
	울릉도와 경북 울진 죽변	130.3km(70.4해리)	해안선 기준 최단 거리
면적	독도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 도서	25,517㎡		
동도와 서도 간 거리	151m	해안선 기준 최단 거리	
부속 도서의 수	동도와 서도 외 89개		
독도 좌표	동도	북위 37도 14분 26.8초	최고위점
	동도	동경 131도 52분 10.4초	최고위점
	서도	북위 37도 14분 30.6초	최고위점
높이	동도	98.6m	
	서도	168.5m	
	독도	5.4km	
둘레	동도	2.8km	
	서도	2.6km	
	평균 해수면 높이(기본 수준면 기준)	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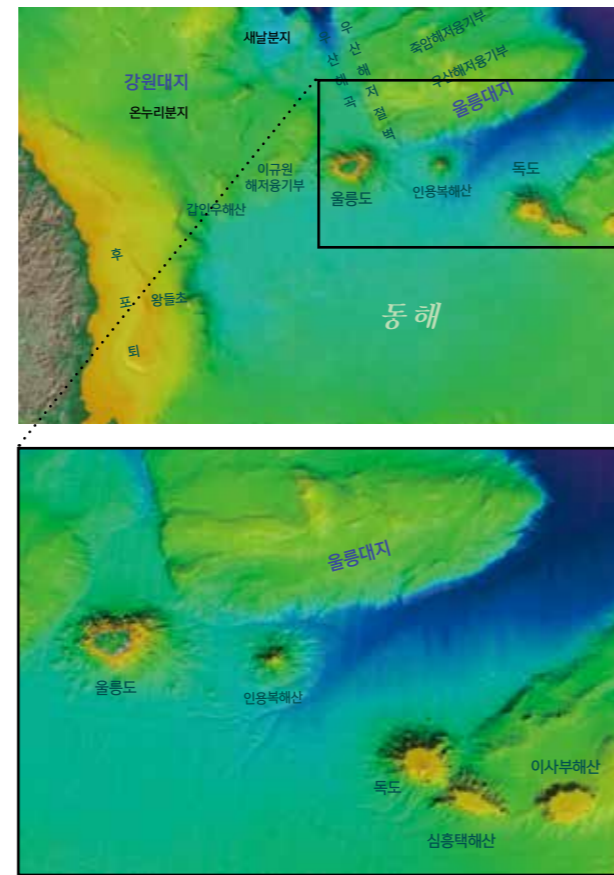
\* 1해리 = 1,852m

독도지리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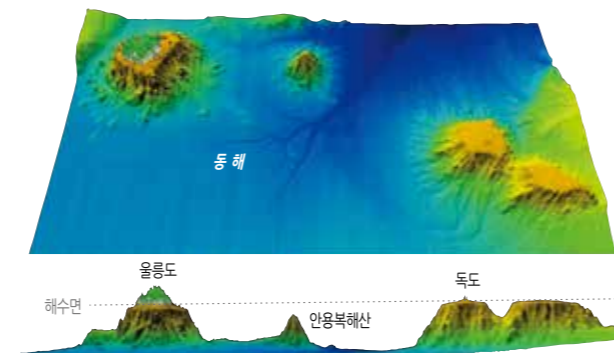
독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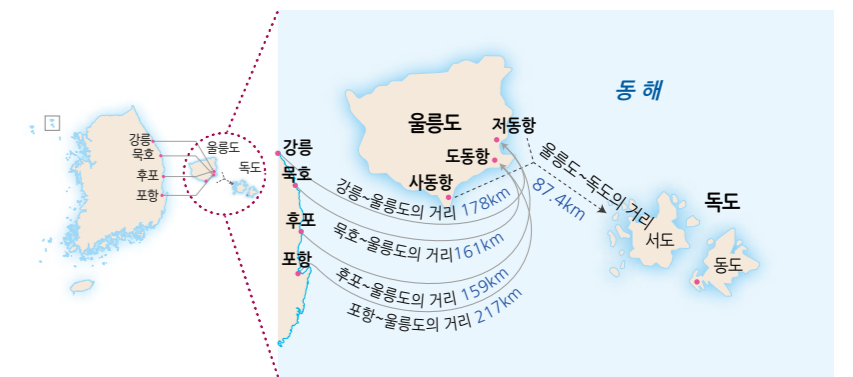
동해의 주요 해저 지형과 지명



독도 주변 3차원 해저 지형



울릉도·독도 항로





# 고지도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의 역사는 삼국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남아 있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현존하는 고지

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로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제작된 세계 지도로는 동서양

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지도를 보면 조선의 영토가 서쪽의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명확하게 그려진 것은 조선 전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국토의 측량을 기초로 한 조선 전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전도로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附圖)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수록된 내용이 간략하다.

왜란과 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후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면서 우리의 영토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후기 지도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정상기의 「동국대전도」가 제작되었다. 「동국대전도」는 약 42만분의 1의 축척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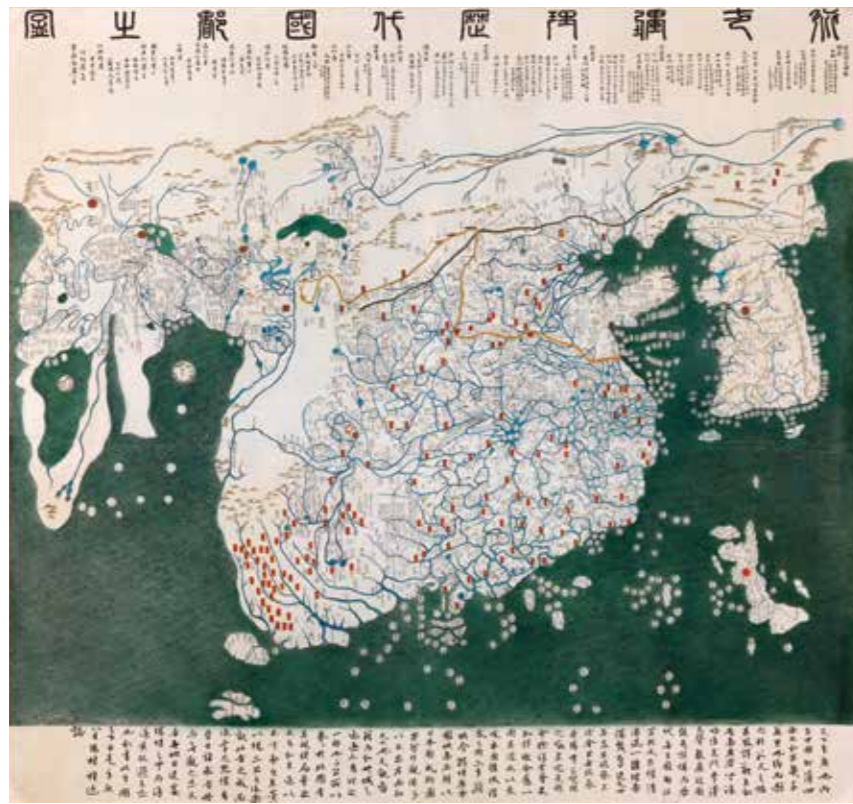
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이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영토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이르러 완결된 형태로 묘사되었다.

지도 제작의 흐름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에서 들여온 근대적 측량 기술을 접하고 삼각 측량으로 지도 제작을 시도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삼각 측량이 행해졌고 일부 지방에서도 측량에 의한 지적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당시 지리 교과서로 집필된 『대한지지』나 『대한신지지』에는 경위선 좌표 체계에 기반한 전도가 수록되기도 했다. 특히 장지연이 저술한 『대한신지지』에 수록된 「대한전도」에는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북간도가 우리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우리의 영토를 그려 내려 했던 이러한 노력은 1910년 우리 영토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단절되었다.



천하도지도 天下都地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60.0 × 10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 天下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85.6 × 61.9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지구전후도 地球前後圖  
최환기, 1834년, 목판본, 전·후도 각각 37.0 × 3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전국 지도



팔도총도 八道總圖  
16세기, 목판본, 28.5 × 34.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계용강(淸用監), 1557년, 채색 필사본, 132.0 × 61.0cm,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248호



동국대전도 東國大全圖  
정상기, 18세기 중엽, 채색 필사본, 272.7 × 14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국총도 我國總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152.5 × 8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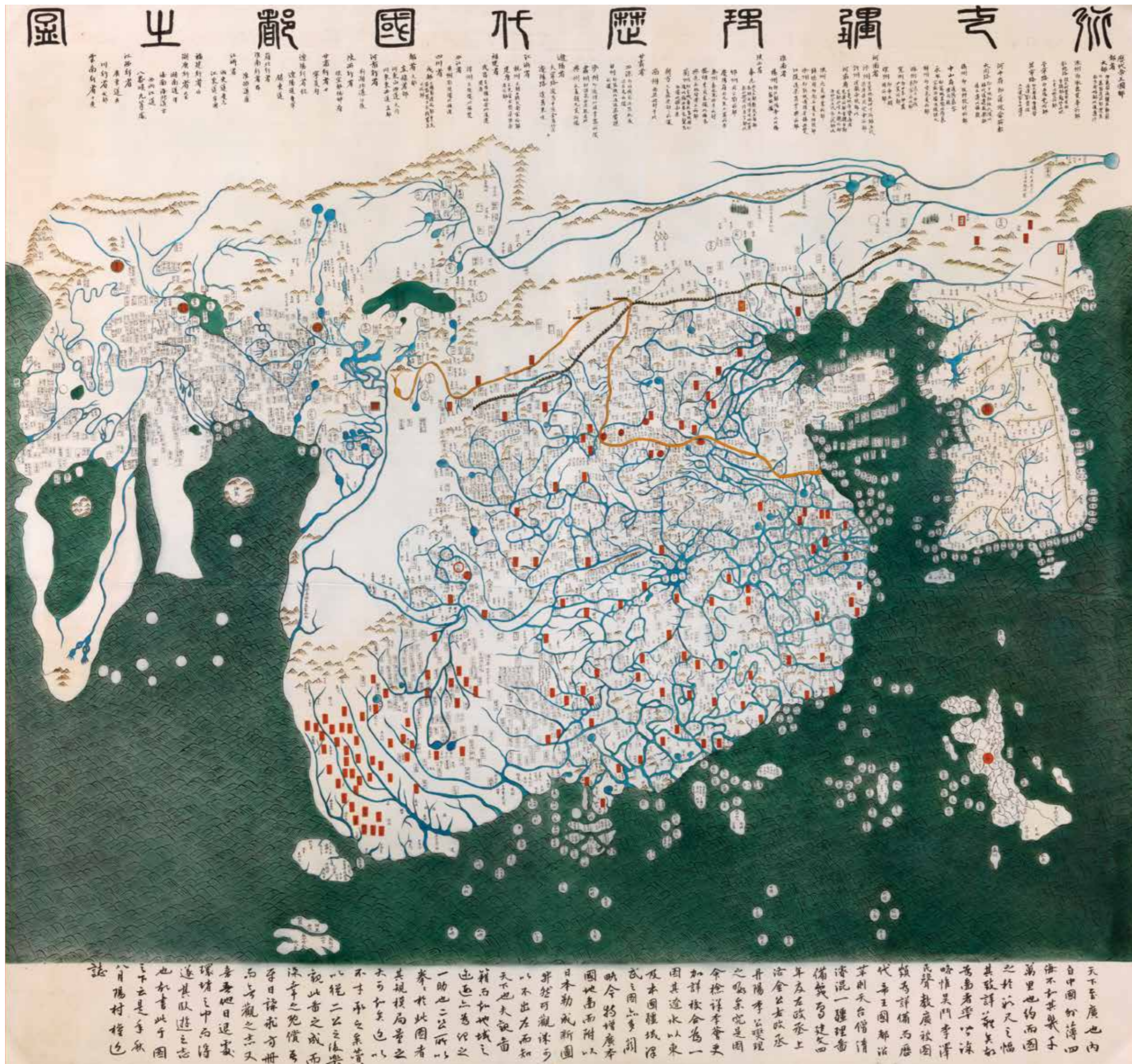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종 30.5 × 171.5cm(총 22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장지연, 현성운, 1907년, 33.7 ×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402년(태종 2)에 대사성 권근, 좌정승 김사형, 우정승 이무, 검상 이회(李會)가 만든 세계 지도를 후대에 모사한 지도이다. 중앙에는 중국, 동쪽은 조선과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구대륙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 아라비아 서쪽의 지역은 원나라 때 유입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던 당시 개방적인 대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하단의 서문에 의하면, 이 지도는 중국의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 조선의 전도, 그리고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편집·제작한 것이다. 15세기 초의 세계 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한 최초의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바깥으로는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몇천, 몇만 리인지 모른다. 이것을 줄여서 몇 자의 넓이로 그리려면 상세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로 그려진 것들이 모두 소략하다. 오직 오문(吳文)이택민의 「성교광피도」는 매우 상세하고, 역대 제왕 국도(國都)의 연혁은 천태승정준의 「혼일강리도」에 잘 수록되어 있다. 건문 4(1402)년 여름 좌정승 상락공 김사형과 우정승 단양공 이무가 섭리(變理)의 여가에 이 지도들을 연구한 후, 검상(檢詳) 이회에게 명하여 상세하게 교정하여 합쳐서 하나의 지도로 만들게 하였다. 요수(遼水)의 동쪽과 본국(本國)의 강역은 이택민의 지도에도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특별히 본국의 지도를 증보하고 일본을 첨부하여 새롭게 지도를 만들었다. 정연하고 보기에 좋아 집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다. 지도와 서적을 참고하여 지역의 원근(遠近)을 아는 것은 정치에도 얼마간 도움이 된다. 두 공께서 이 지도에 몰두했던 것을 통해 그 규모와 국량이 크심을 알 수 있겠다. 나는 재주가 없는데도 삼찬(參贊)의 직분을 맡아 두 공의 뒤를 따랐는데, 이 지도의 완성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니 아주 다행스럽다. 내가 평소에 방책(方冊)을 강구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뜻을 이루었으며, 또한 기쁜 것은 후일 물러나 집에 거처하여 와유(臥遊)하게 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도의 하단에 이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을에 씀



지도는 한양 주변을 나타낸 것이다.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산은 산이 가진 특성에 맞게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천지와 백록담을, 금강산은 1만 2천 봉을, 삼각산은 3개의 봉우리를 표현하였다. 물줄기는 곡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쌍선과 단선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지를 구분하였다. 도로는 모두 직선으로 10리마다 눈금이 있다. 눈금의 간격은 지형의 경사 등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 경계는 점선으로 표현했으며, 오늘날 지도처럼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였다.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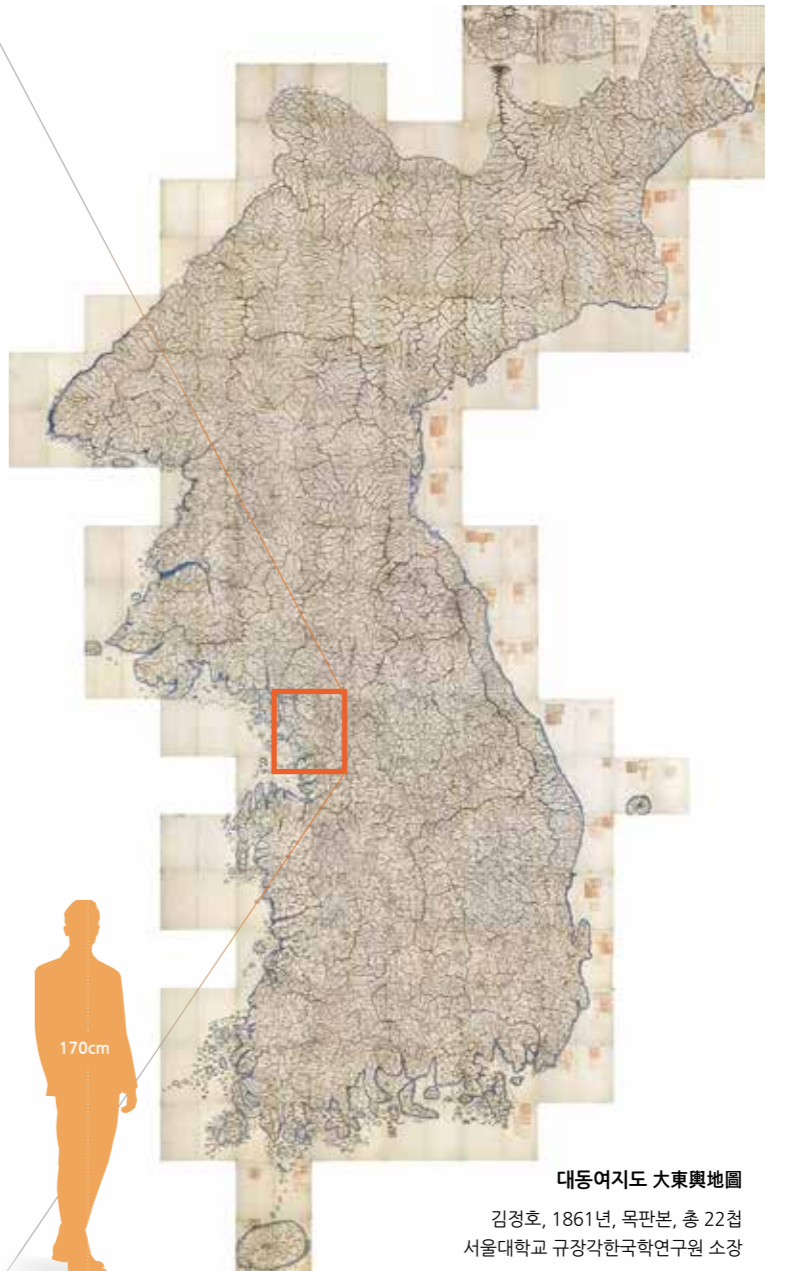
지도표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조선 시대 지도학의 모든 성과들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축척은 대략 1:16만 정도이다. 우리나라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20리 간격으로 나누어 전체를 22층으로 만들고, 각층은 80리 간격으로 끊어서 병풍처럼 첩으로 만들었다. 22개의 첩을 모두 연결시키면 가로 410cm, 세로 660cm 정도의 대형 전도가 된다. 표현 기법에서는 산지를 이어진 산줄기의 형태로 표현하여 전통적인 산수분합의 원리를 반영했다. 각

종 범례의 사용과 더불어 도로에 10리마다 표시를 하여 거리를 가늠케 함은 물론, 예술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조선 시대 지도의 최고 걸작품 중의 하나이다.

대동여지도는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고, 목판의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숭실대학교박물관 등에 현존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보물 제850호, 목판은 보물 제1581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총 22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접혀 있는 형태의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목판 大東輿地圖 木版  
김정호, 1861년, 32.0x43.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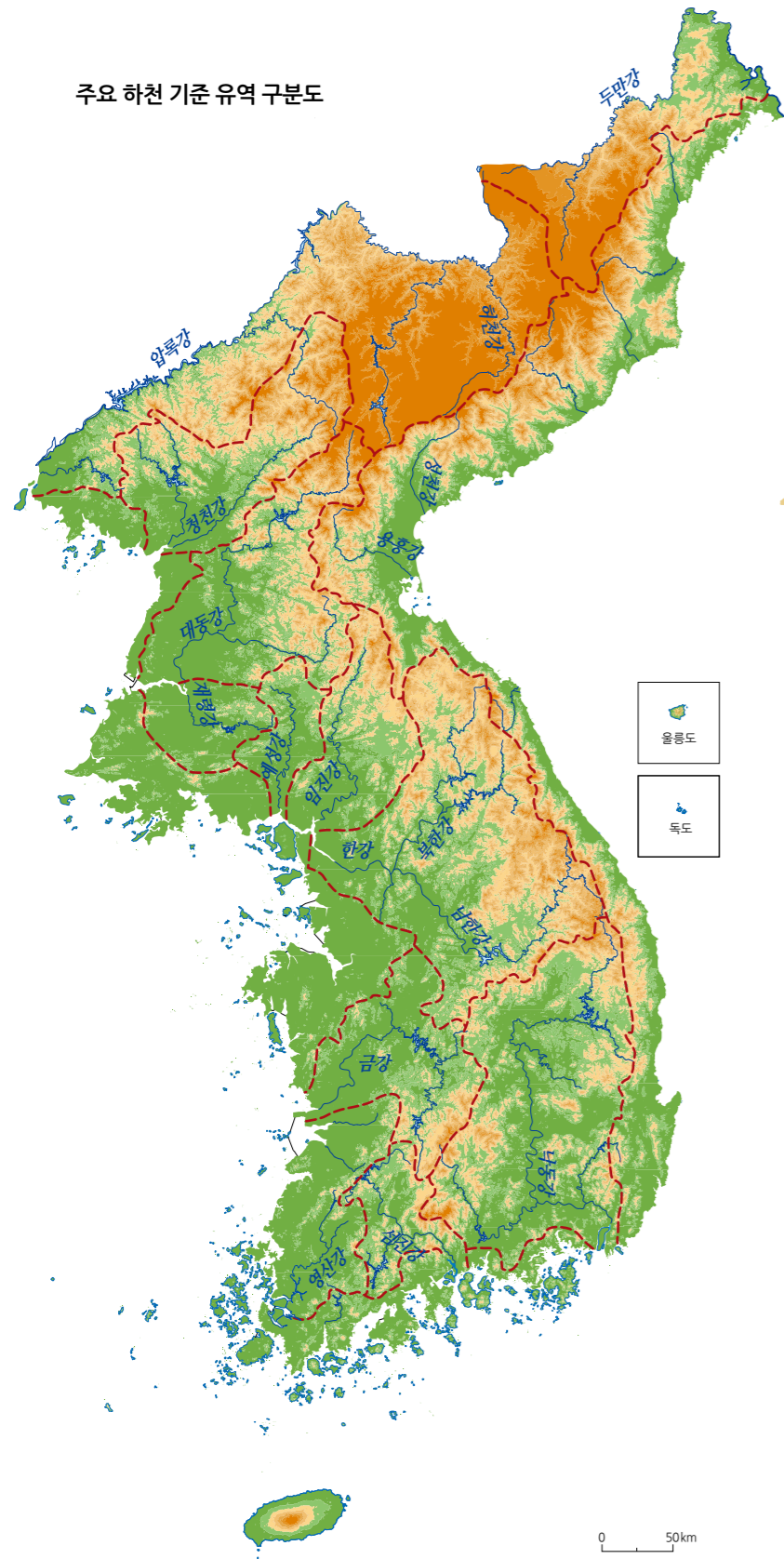
# 지역 구분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산과 강의 분포와 크게 관련 있다. 지역 구분은 크게 행정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구분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며, 지리적 구분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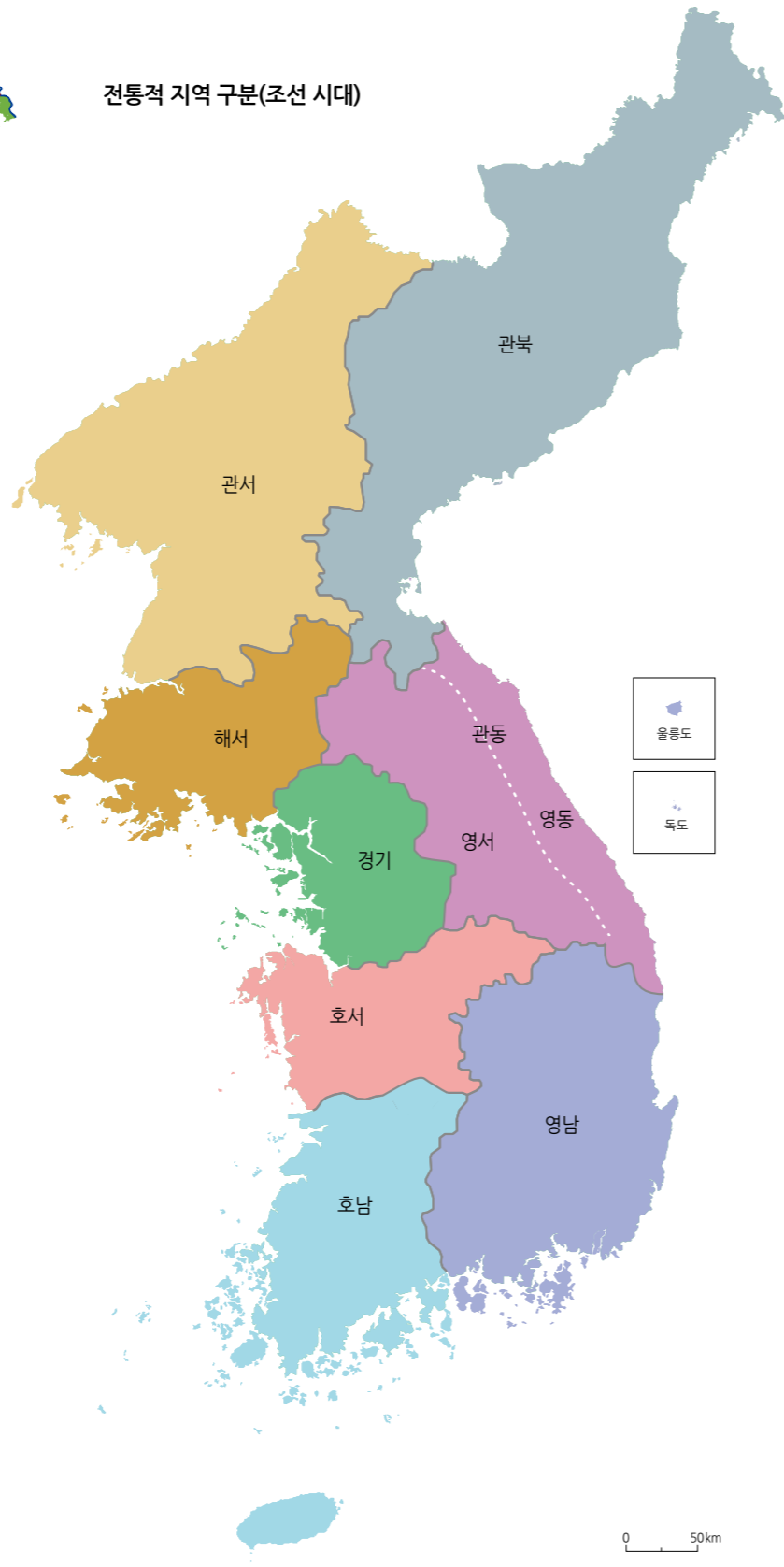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의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 관서 지역은 조선 시대 행정 구역 기준으로 볼 때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관북 지역은 함경도, 관동 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관동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을 영서, 동쪽을 영동으로 인

식하였다.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 호서 지역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 기준으로 볼 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호남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영남 지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조령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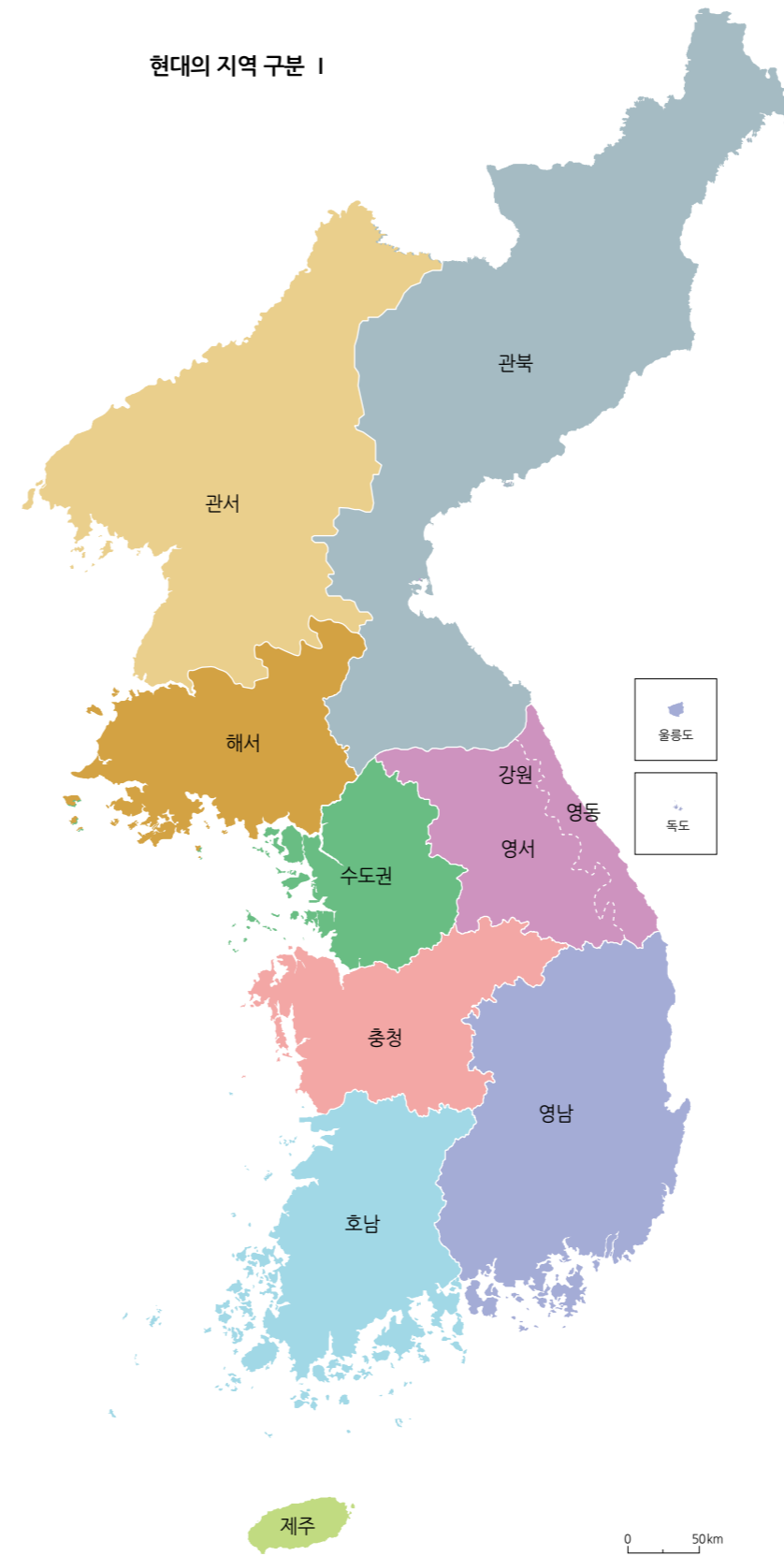
주요 하천 기준 유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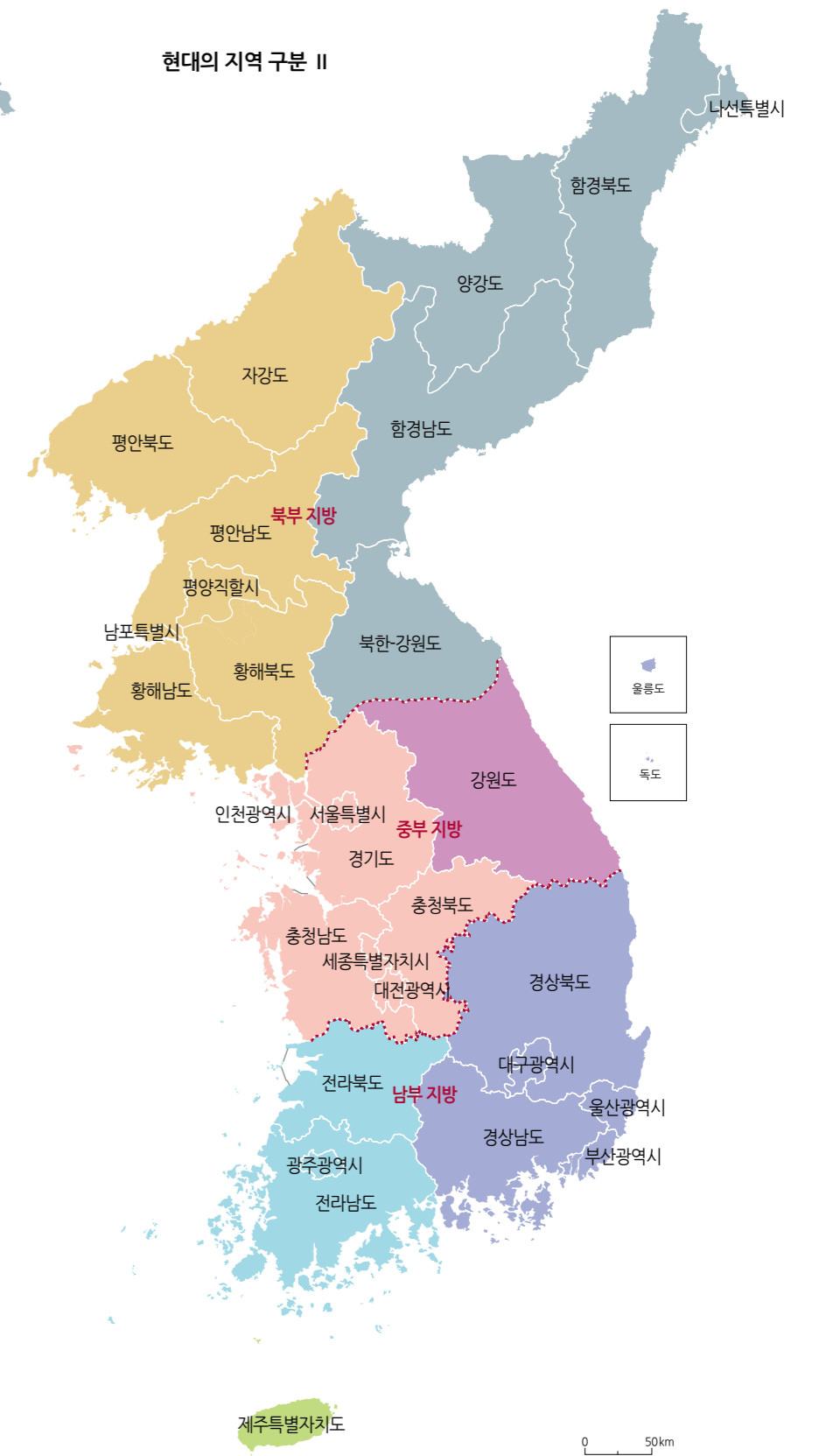
전통적 지역 구분(조선 시대)



현대의 지역 구분 I



현대의 지역 구분 II





# 행정 구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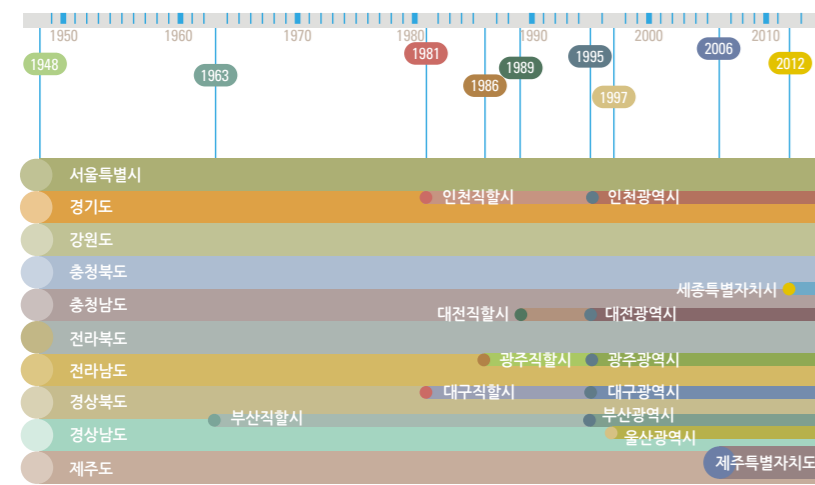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을 위한 공간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

시키며 균형 발전을 꾀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광역 행정 체계는 도를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 행정 구역 체계를 현대의 행정 구역 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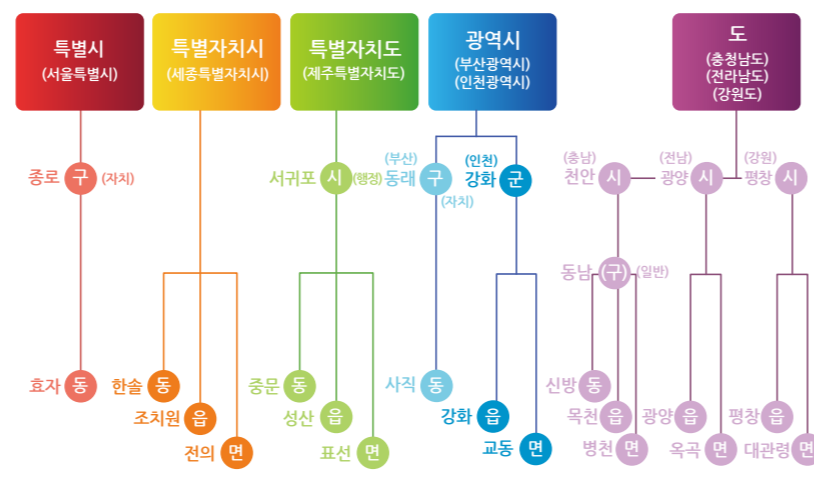
오늘날 남한의 행정 구역은 크게 1개의 특별

시(서울),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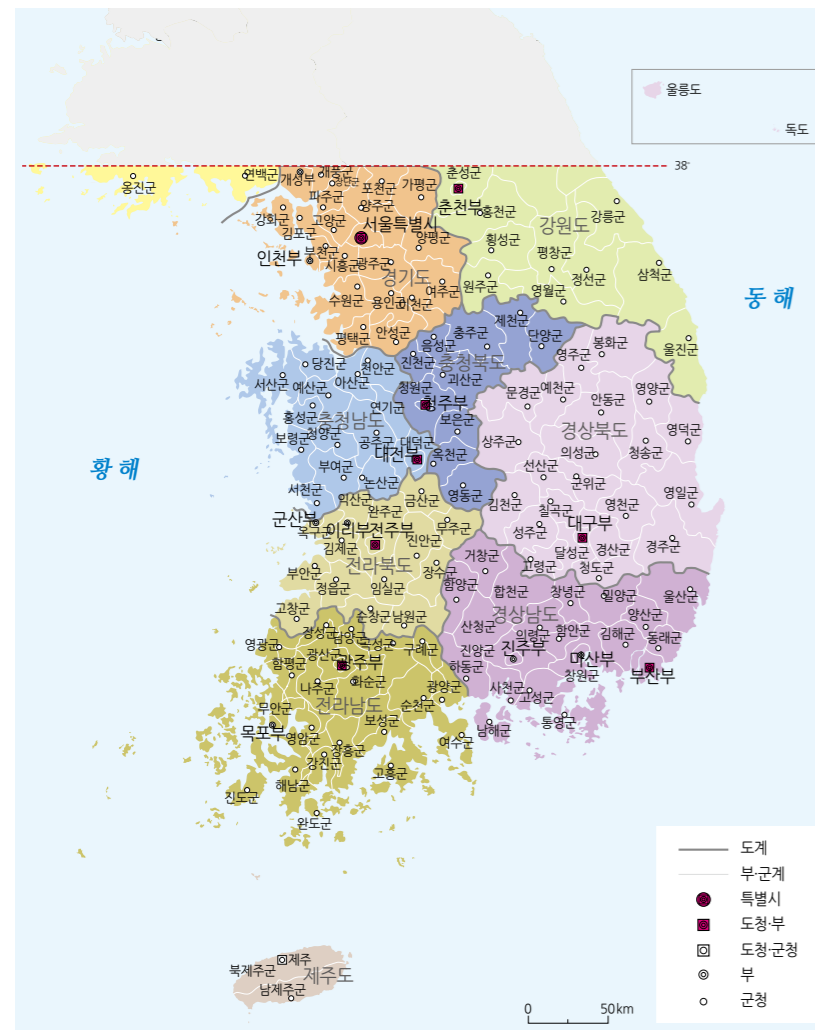
광역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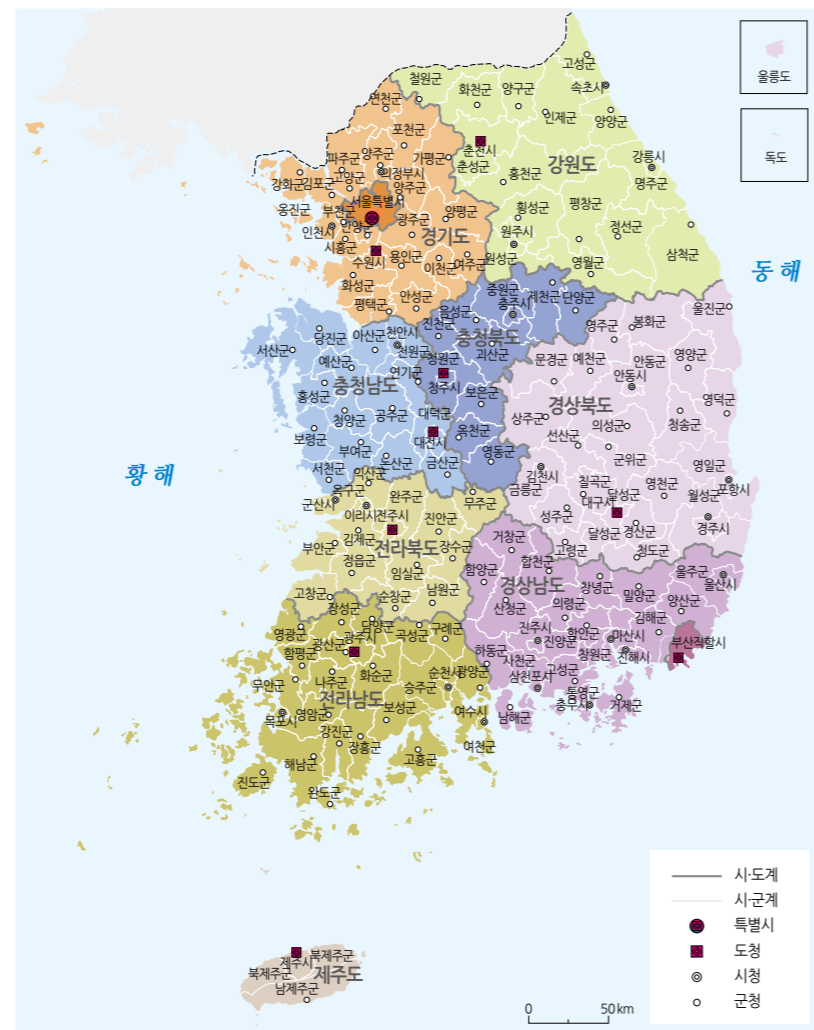
행정 구역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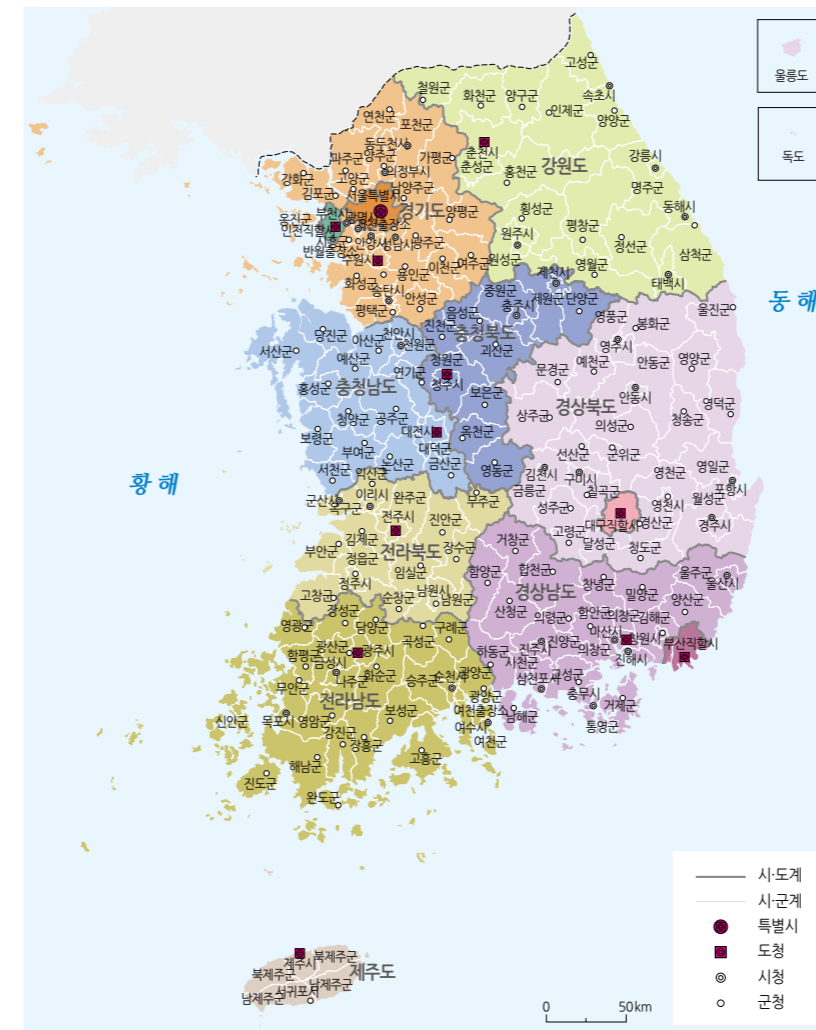
19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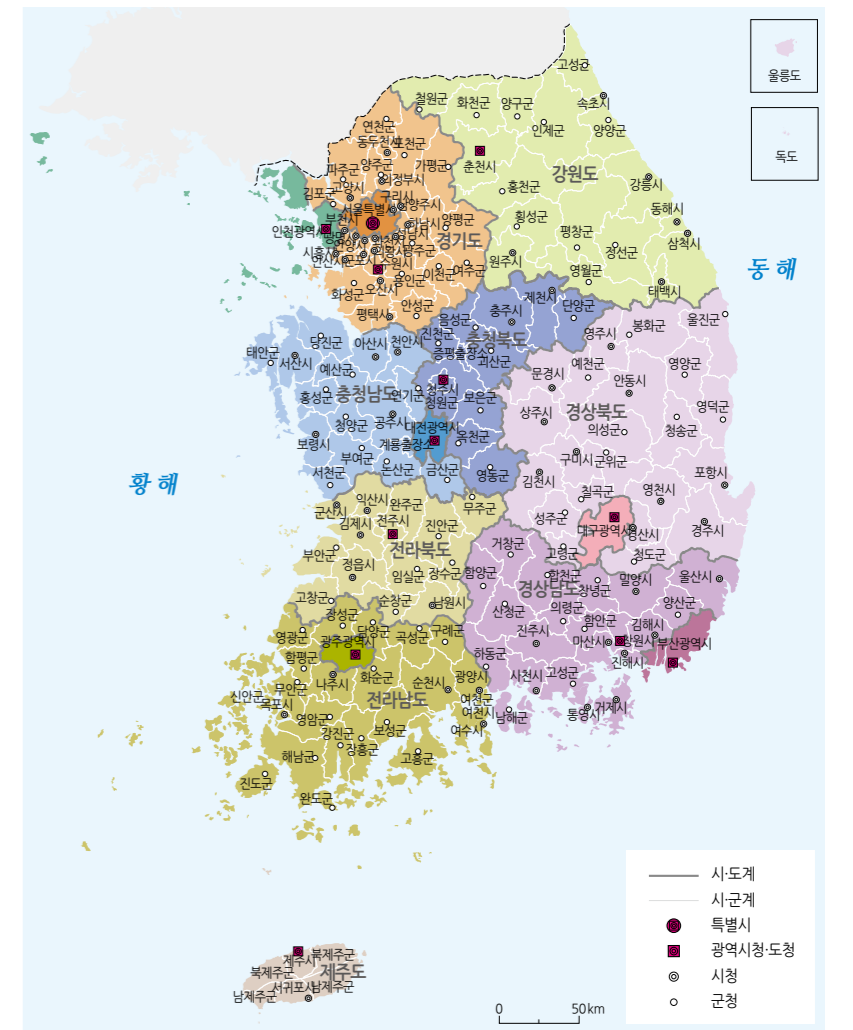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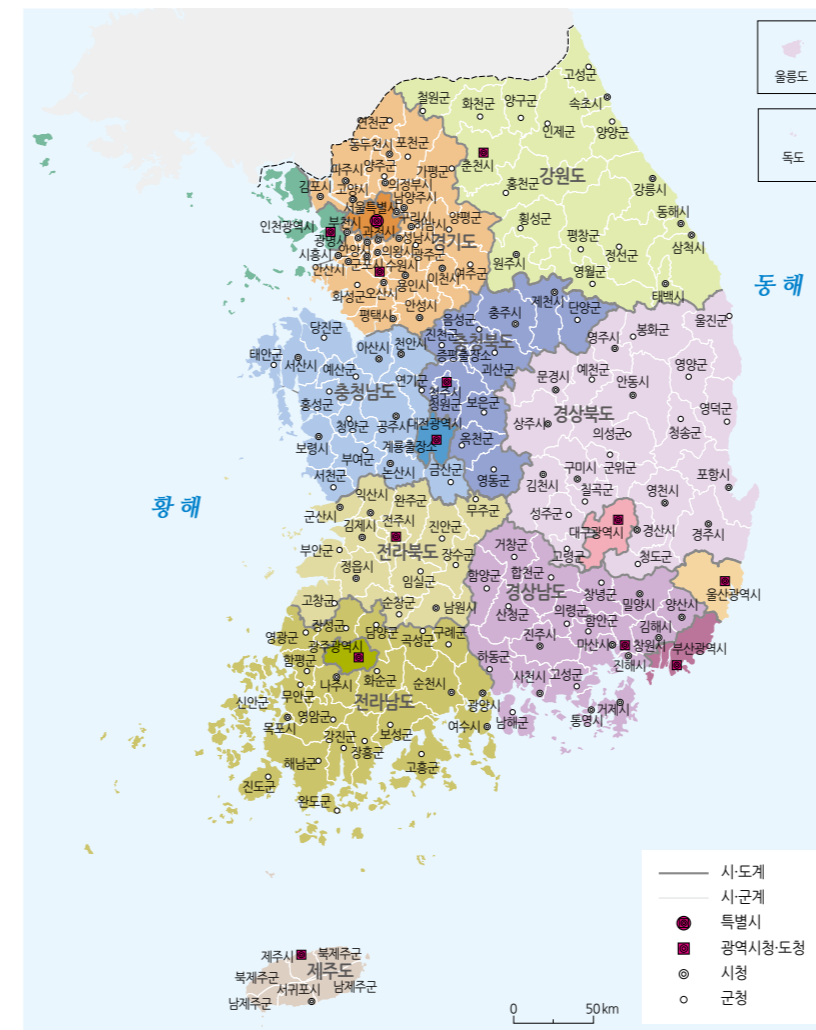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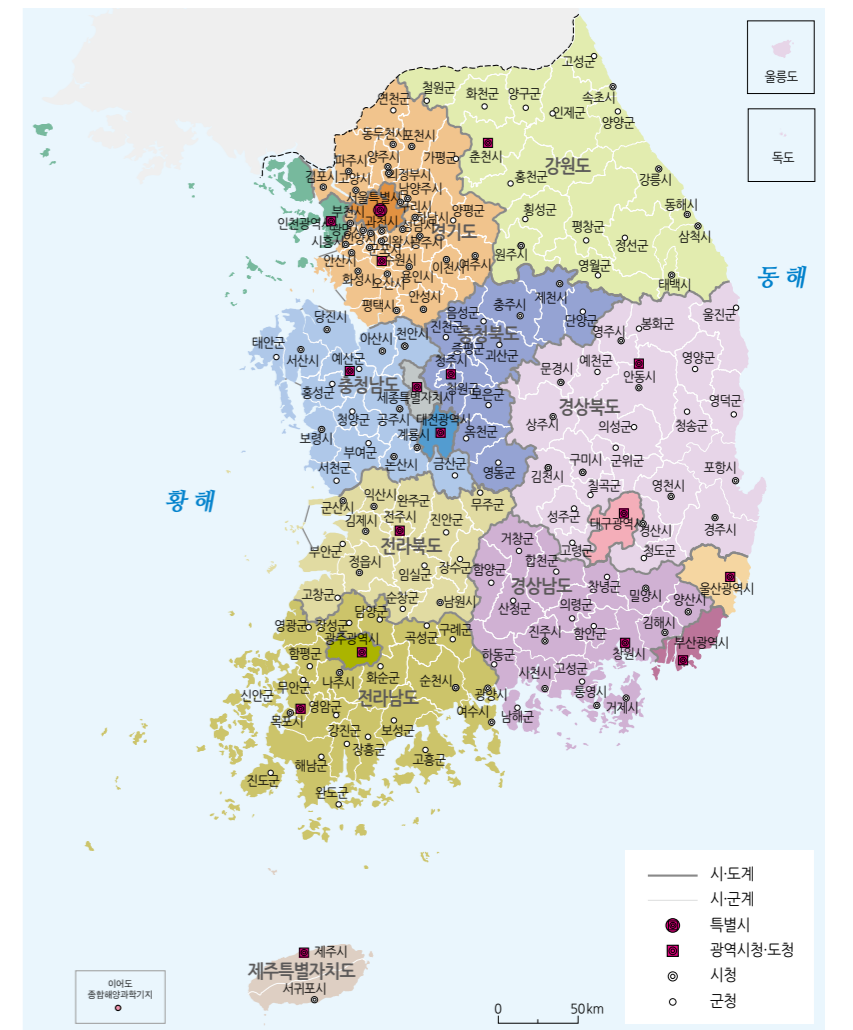
1995년



2000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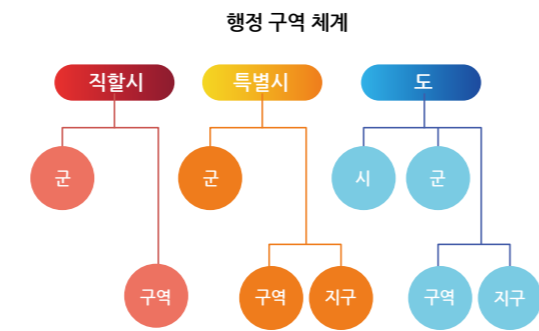
# 북한의 행정 구역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sup>2</sup>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404km<sup>2</sup>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5년에는 약 2,478만 명으로, 북한의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499.1명/km<sup>2</sup>의 40% 수준인 201.2명/km<sup>2</sup>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베이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단동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국경으로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도, 1특별시, 9부, 89군, 810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시·군-읍·면·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

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5년 북한은 1직할시(평양직할시), 2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 도와 구성되어 있다.



## 북한 지역 개괄

주요 도시 인구(천 명)  
평양 2,863 / 청진 631 / 함흥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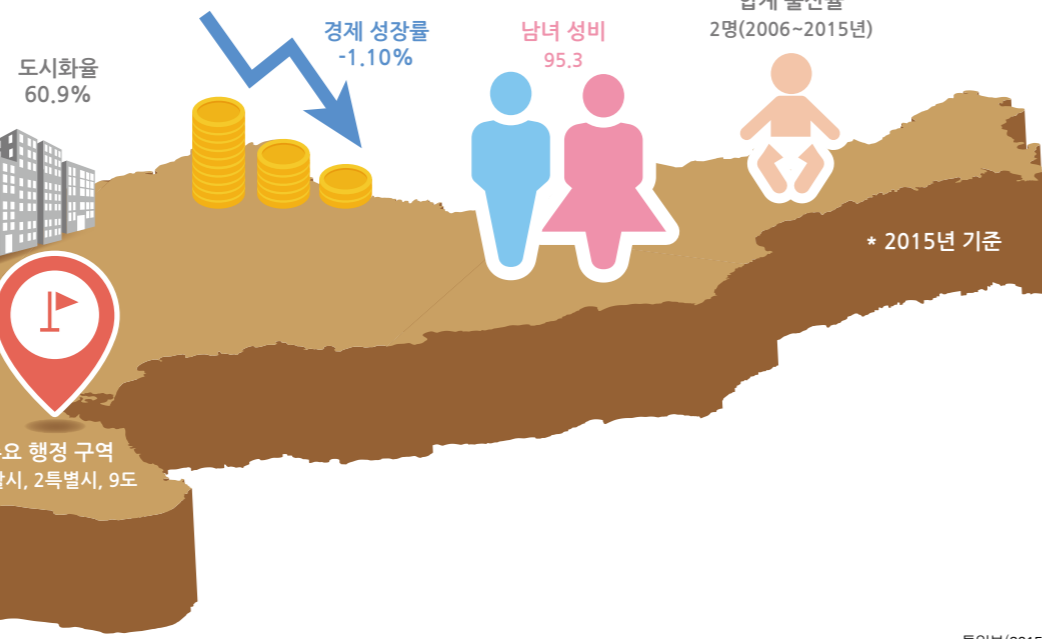
인구 | 인구 밀도  
24,779,000명 | 201.2명/km<sup>2</sup>

1인당 국민 총소득  
139만 원

국민 총소득  
34조 5,12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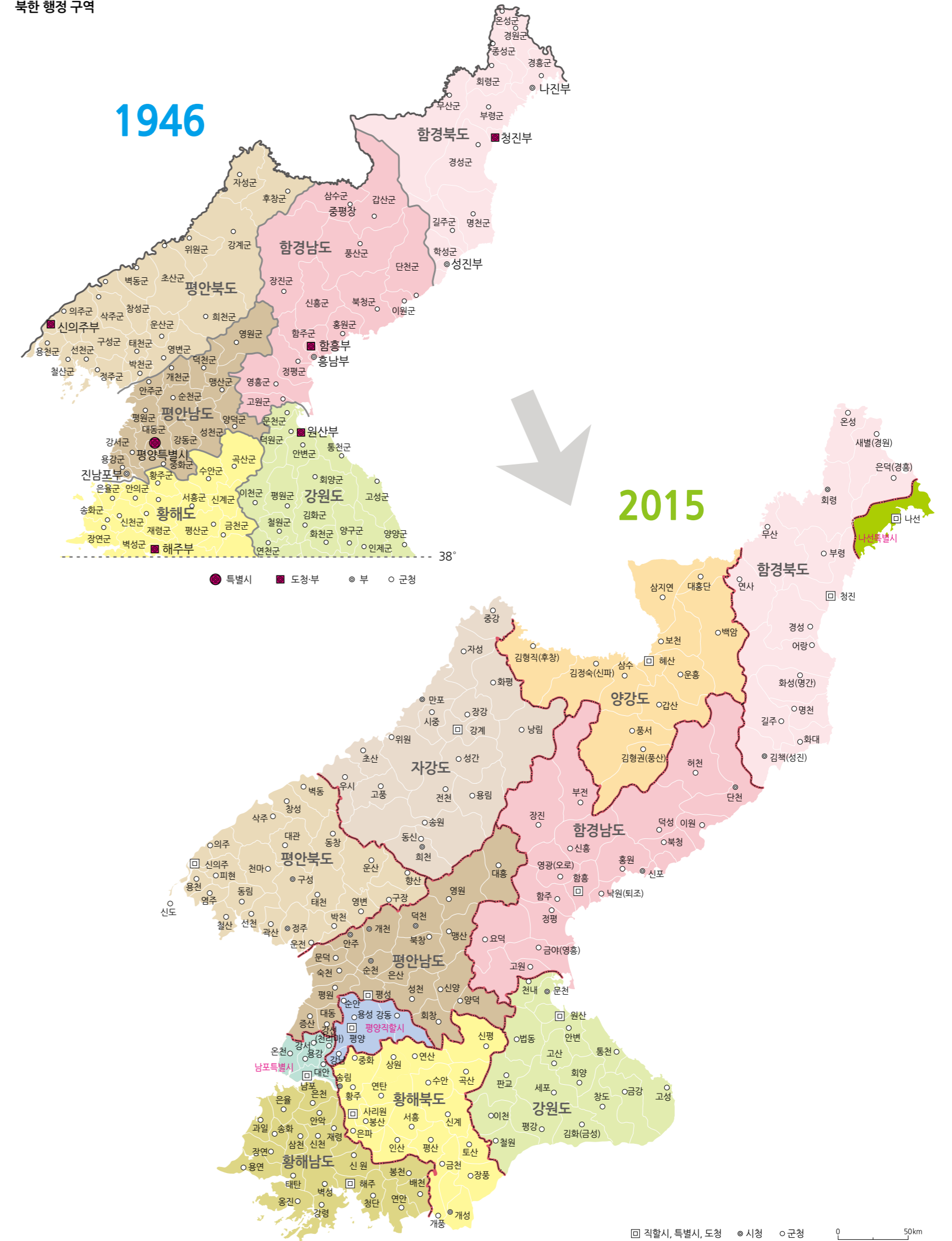
주요 행정 구역  
1직할시, 2특별시, 9도

면적  
123,138km<sup>2</sup>



통일부(2015)

## 북한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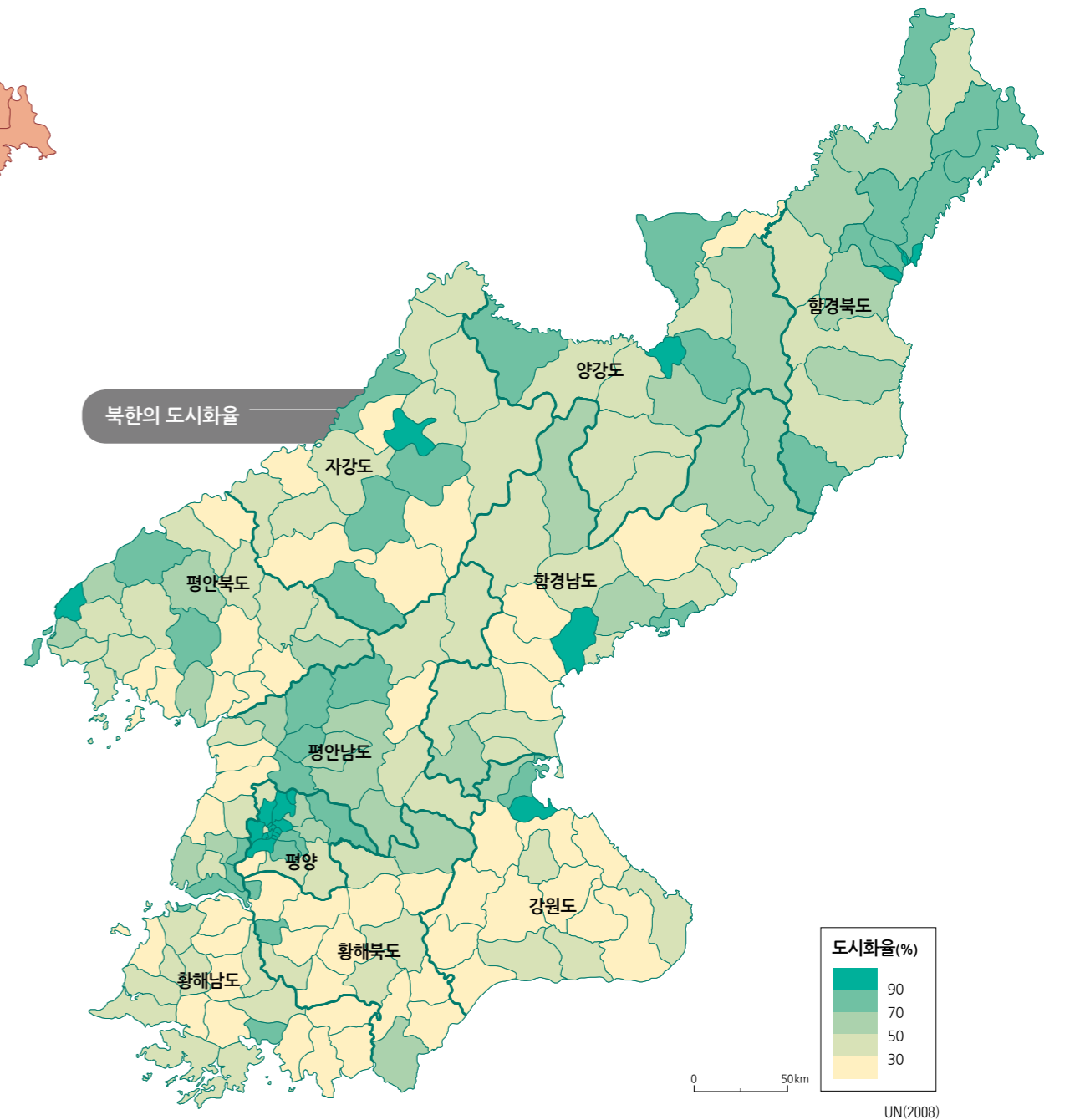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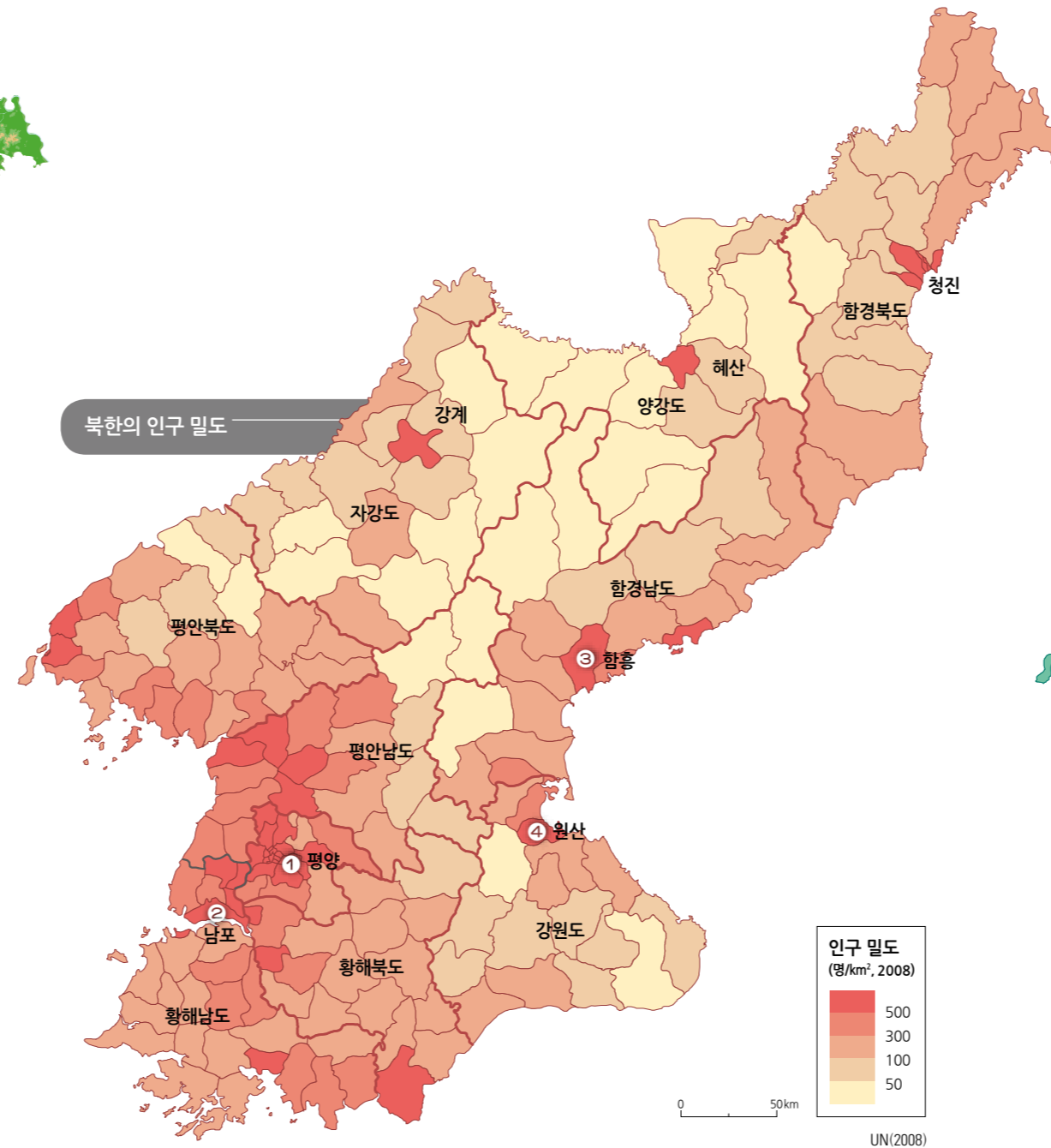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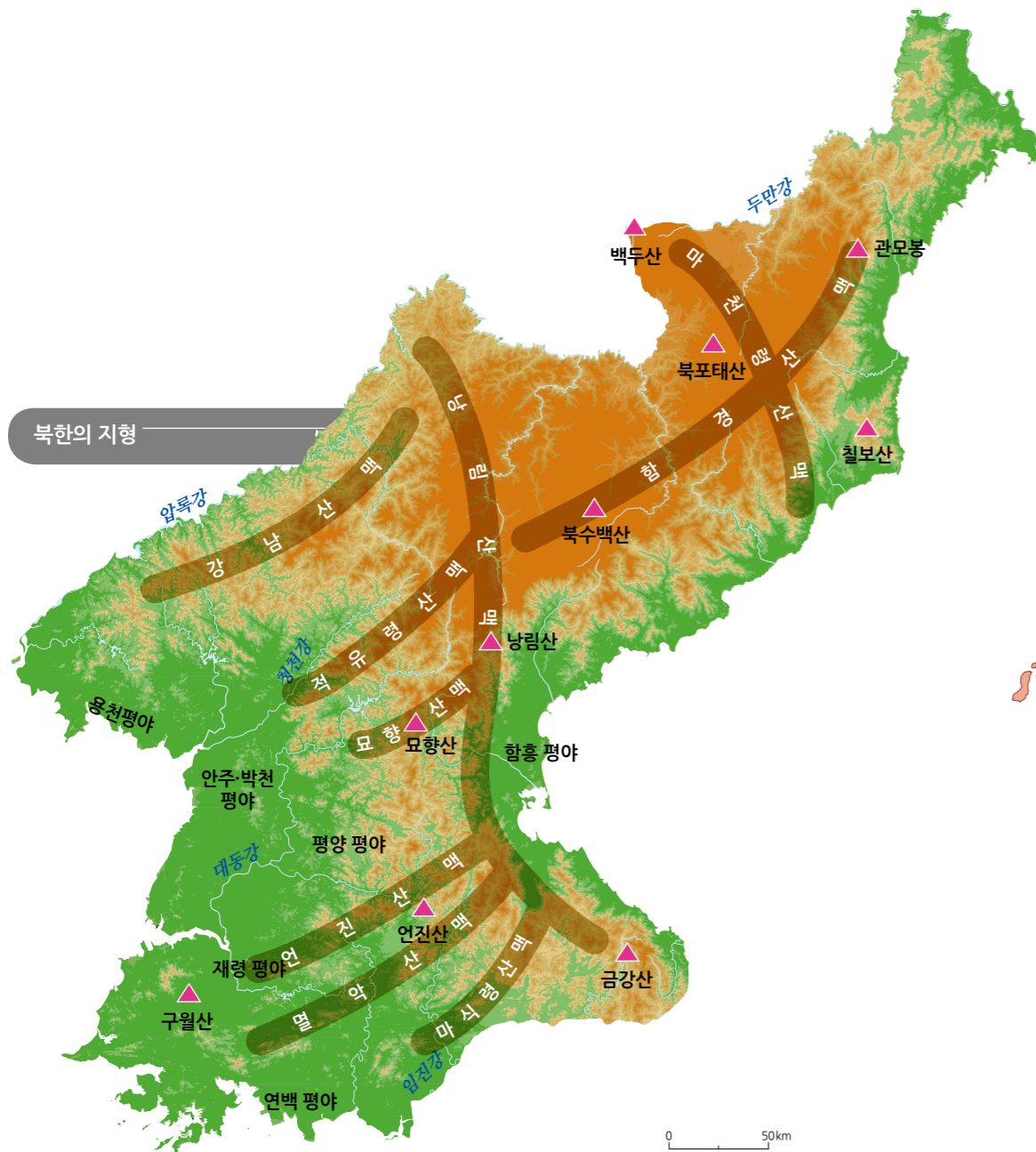
# 북한의 인구와 도시

북한 지역의 지형을 보면,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에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 주변으로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

의 주요 평야 지대가 분포하며, 많은 인구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지만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5년 북한 지역 총인구의 61%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

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이며, 그 뒤를 함경북도 청진과 함경남도 함흥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2개, 10만 명 이상인 도시도 18개에 불과하다.

북한의 주요 도시





# 북한의 경제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앙 주도의 계획 경제라는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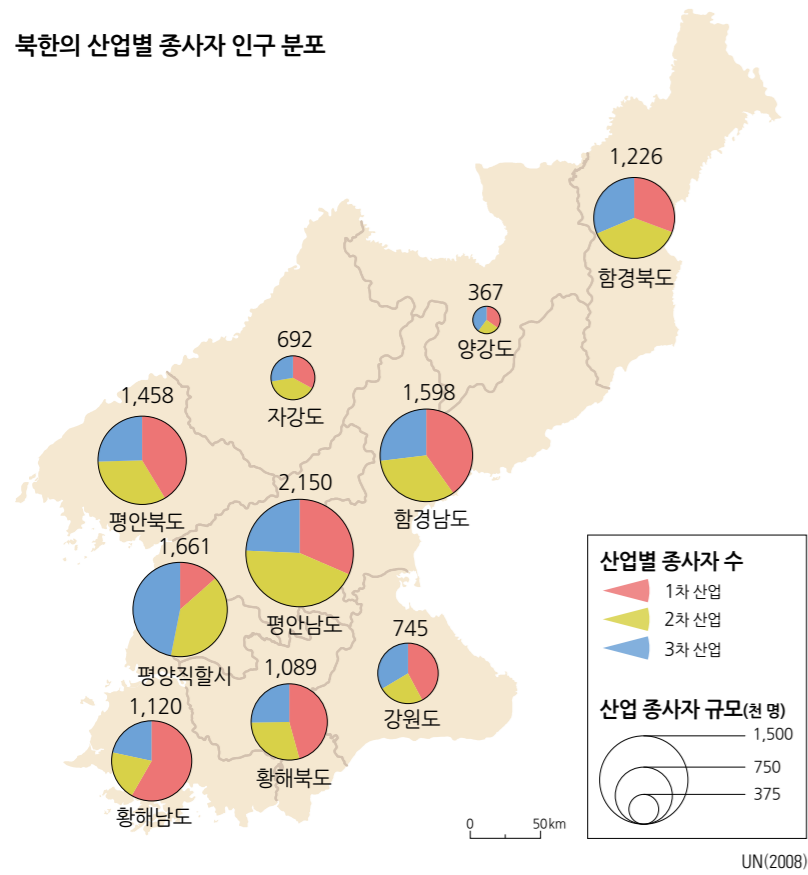
2008년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분석하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36.1%, 2차 산업 34.3%, 3차 산업 29.6%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는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높고,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 남부 탄전, 평남 북부 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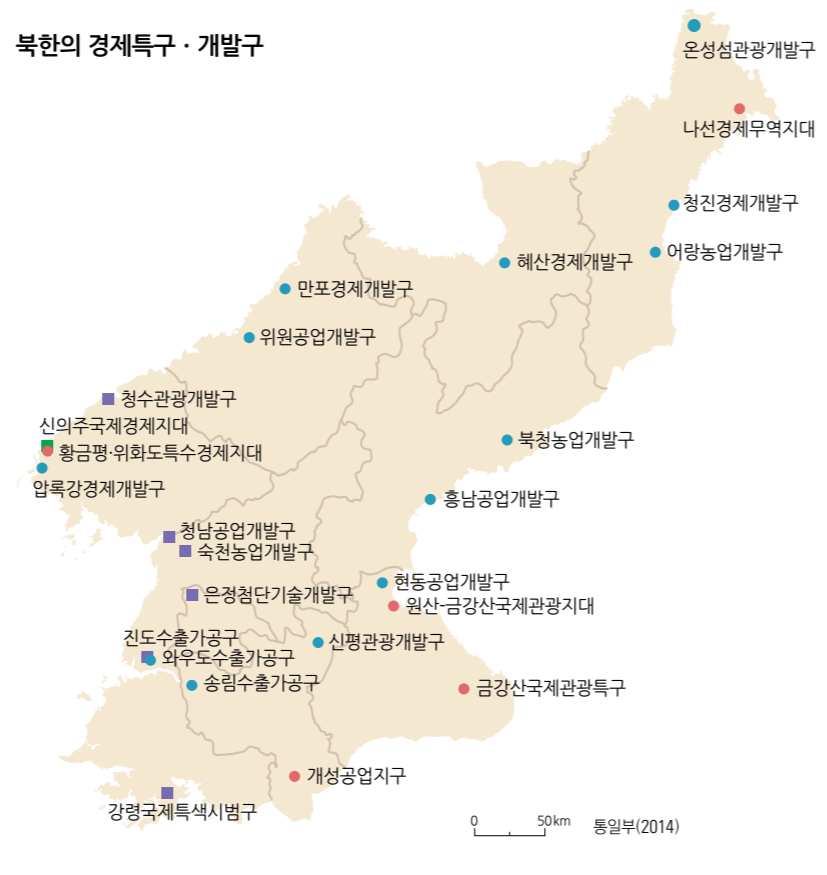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으며, 2002

년 9월 신의주 행정 특구, 10월 개성 공업 지구, 11월 금강산 관리 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이 지역과 함께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신의주 특구와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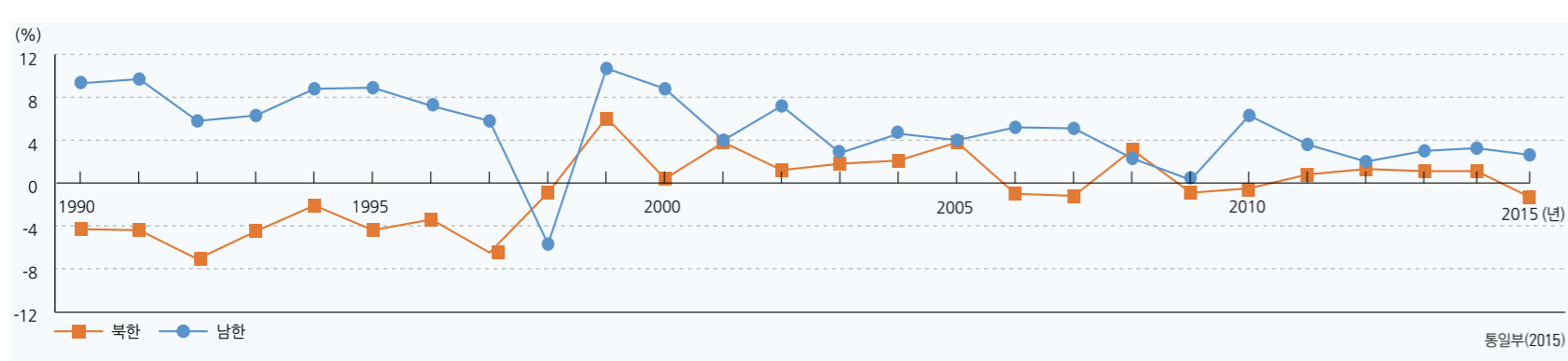
북한의 산업별 종사자 인구 분포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산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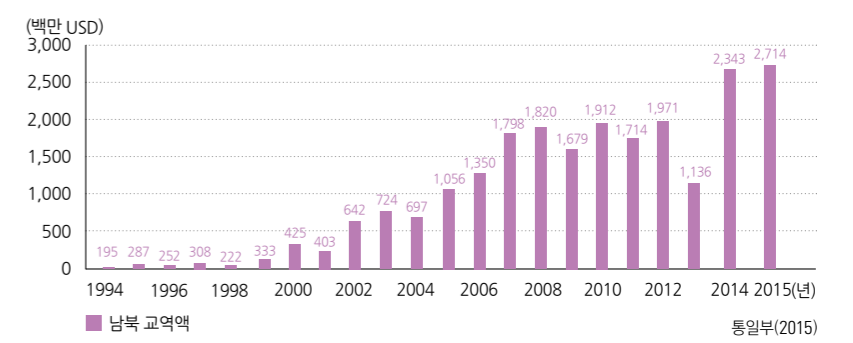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산업은 중단되었

으며, 2016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심화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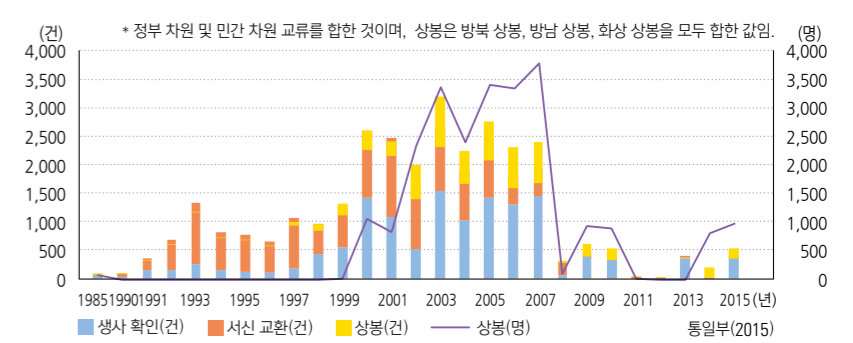
남북 교역 및 경험 연혁

- 1971. 09. ~ 1973. 07. ▶ 남북 적십자예비 회담(총 25차) 및 본 회담(총 7차)
- 1984. 09. ~ 1984. 10. ▶ 북한, 우리측 수해 물자 지원
- 1984. 11. ~ 1985. 11. ▶ 남북 경제 회담(총 5차)
- 1988. 07. 07. ▶ 노태우 대통령,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 1990. 08. 01.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협력 기금법」 제정
- 1991. 12. 13.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994. 11. ▶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 1995. 06. ~ 1995. 10. ▶ 대북 식량 지원 15만 톤 실시
- 1998. 11. 18. ▶ 금강산 관광 시작
- 1999. 06. 08. ~ 22. ▶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 최초 실시(11.05만 톤)
- 2000. 06. 13. ~ 15. ▶ 2000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 2000. 10. ~ 2001. 03. ▶ 대북 식량 차관 최초 실시(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 2002. 09. 18. ▶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거행
- 2003. 06. 30. ▶ 개성 공단 착공식 거행
- 2003. 08. 20. ▶ 남북 4대 경험(투자 보장, 이증 과세 방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청산 결재) 합의서 발효
- 2004. 06. 30. ▶ 개성 공단 시범 단지(92,400㎡) 준공
- 2007. 10. 02. ~ 04. ▶ 2007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 2008. 07. 12.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07.11.)으로 관광 중단
- 2010. 10. ~ 11. ▶ 북한 수해 지원(쌀, 시멘트, 커피라면 등)
- 2015. 10. 13. ~ 11. 15. ▶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특별 전시회(서울·개성)
- 2016. 02. 10. ▶ 개성 공단 전면 중단
- 2017. 04. 07. ▶ 북한, 우리측 수해 물자 지원

남북 교역액 현황(19934 - 2015)



이산 가족 교류 현황(1985 - 2015)



개성 공단 현황(2005 - 2015)

